



## 흑자 행진 ... 상반기만 11억 원

### 광고 등 매출 18.6% 늘어 ... 사업은 감소

YTN은 지난 상반기 중 매출 확대와 비용 통제에 힘입어 11억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지속돼 온 YTN의 흑자행진이 올 상반기에도 이어진 것으로 그만큼 YTN의 수익구조가 흑자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YTN이 8월 9일 공시한 상반기 경영실적을 보면 1분기에는 9억 3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으나 2분기에 큰 폭의 실적 개선으로 20억 3천만 원의 흑자를 달성, 상반기 누계로 1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10억 원의 적자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에 수익이 20억 원이나 개선된 것이다.

상반기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된 것은 매출은 369억 4천만 원으로 13.2%의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매출원가는 1.5% 증가하는 데 그친 324억 9천만 원에 머문 데 따른 것이다.

부문별 매출 실적을 보면 광고를 중심으로 한 방송 매출이 301억 8천만 원으로 18.6%의 높은 증가율을 기



YTN은 이에 앞서 8월 2일 표완수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영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표 사장은 “생방송 뉴스를 강화하는 등 콘텐츠 혁신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체제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광고체감 경기 악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YTN은 통신 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 가속

화, 지상파의 PP 사업 확대, 신문사들의 보도 방송 진입 시도 등 다면적 경쟁관계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혁신 ▲성장동력 확충 ▲경영관리 체계화 ▲인사 혁신 ▲기술변화 대응 ▲자회사 경영 안정 등 6개 전략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YTN은 8월 9일 상장 이후 첫 기업설명회(IR)를 본사 사옥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40여명의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이 참석해 YTN의 경영성과 및 전략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록, 매출 신장세를 주도한 반면 사업 매출은 다소 부진해 14억 9천만 원으로 17.7%가 감소했다.

상반기 경영 성과 중 눈에 띄는 점은 매출채권 관리가 강화되고 채권 회수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매출채권의 부실화 문제가 크게 해소되었다는 점이다. YTN의 외부 감사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06년 반기검토 결과 보고’에서 광고매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데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매출채권의 절대금액이 줄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사장 표완수입니다.

YTN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당사의 2006년 상반기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YTN은 지난 1995년 케이블 TV의 출범과 함께 24시간 뉴스방송의 새 지평을 연 이후 쉽 없이 달려왔으며 지난 7월 28일에는 생방송 10만 시간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YTN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YTN은 이제 뉴스 하면 YTN을 떠올릴 정도로 국민과 함께하는 24시간 뉴스채널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미디어 사업영역에도 적극 진출하는 등 One Source Multi-use 전략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에는 위성 DMB의 보도 채널 운영 사업자로 선정되어 방송을 개시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지상파 DMB 본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광고주 저변 확대를 통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강화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경영실적 측면에서도 3년 연속 흑자 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2006년 상반기에도 흑자를 시현하는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YTN은 하반기에도 보다 나은 경영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미디어 환경은 현재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YTN은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크게 세가지 측면에 경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흑자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본업인 방송 부문에서의 수익 확충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사적 매출 확대 노력과 비용 절감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확보한 수익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으로써 ‘한국의 뉴스리더’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견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뉴미디어의 큰 흐름에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대응하고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미래의 성장 엔진을 계속 확보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당사 임직원 모두는 여러분에게 더욱 개선된 경영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8. 9  
 YTN 대표이사 표 완 수

### 9월호 목차

- 121 ▶ 한국의 뉴스채널 YTN, 생방송 10만 시간 돌파
- 131 ▶ 취재기 - 경남 특파원 박종혁입니다
- 141 ▶ 수해취재기 - 수마가 휩쓸고 간 인제
- 141 ▶ 호우특보방송 - 꿈에서도 호우 방송
- 151 ▶ 누리꾼들의 촌철살인 목소리 전달 전국대학생영상공모전 - 껌데기여 오라!
- 161 ▶ DMB 시청- 편리성보다 사회적 관계와 정보
- 171 ▶ 야후에서 만나는 YTN / 디지털 영상 전송
- 181 ▶ 연수기 - 미국에서 체험한 '한강의 기적'



# 한국의 뉴스채널 YTN, 생방송 10만 시간 돌파



95. 3. 1 YTN 첫 방송



95. 3. 1 YTN 첫 방송



95. 6. 29 '삼풍백화점 붕괴' 보도



2005. 12. 1 YTN DMB 개국

가입자 수는 1995년 말 55만명에서 2004년 1277만명, 2006년 3월말 140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시대 환경에 맞춰 방송매체로는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인터넷 매체인 '디지털 YTN' '위

24시간 뉴스 채널 YTN이 7월 28일자로 뉴스 생방송 10만 시간을 돌파했다. 1995년 3월 1일 정오 뉴스로 첫 방송을 시작한 지 11년 5개월에 걸쳐 쌓아올린 금자탑이다. YTN은 방송을 시작한 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을 시시각각 생방송으로 연결, 피해 현황과 구조상황을 전달하는 재난보도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24시간 뉴스전문채널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다.

이후에도 '대구 상인동 지하철 폭발사고' '9.11테러'

'이라크전' '태풍,홍수 피해' 등 대형 재난 재해를 상세하고도 현장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들은 재난 보도하면 YTN을 떠올리게 됐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각종 사건사고도 매시 정각 또는 30분에 안방에서 접하게 되면서 시청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됐다.

한 발 앞서고 한 단계 높은 보도가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YTN 시청을 원하는 케이블 방송

성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으로, 지역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등 세계 구석구석까지 YTN의 전파가 미치게 됐습니다. 또 올해 시작한 지상파DMB에도 참여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표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게 됐다.

YTN은 이런 양적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뉴스방송의 새로운 획을 긋겠다는 95년 초심으로 사건사고 현장을 늘 지켜나갈 각오다.

## 단 신

### 한농 한기석 화백 개인전



동 서양을 접목시킨 독특한 작품세계로 주목받고 있는 재미작가 한농 한기석씨의 개인전이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프레스센터안에 서울갤러리에서 열렸다.

YTN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유니세프 창설 기념우표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던 대표작 '감나무'를 포함해 60여점의 미발표작들을 선보였다. 개막식에는 YTN 표완수 사장을 비롯해 전운철 감사원장 등 30여 명의 관련인사들이 참석하고 개막행사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종덕 교수의 퍼포먼스 등도 마련됐다.

### YTN, 이재민 돕기 가전품 2천만원 기증



왼쪽부터 YTN 고광남 상무,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협회 한중광 상임이사

YTN은 8월 3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 돕기에 써달라며 가전제품 등 2천만 원어치를 전달했다. 고광남 YTN 상무는 지난 달 중순과 하순 두 차례에 걸친 큰 비로 이재민이 많이 발생해 기금 아파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재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해구호협회 측은 YTN 등 방송사에서 내보낸 재해방송과 지원 활동이 피해 예방과 복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YTN은 또 8월 17일 불우이웃돕기 단체인 아름다운 가게에 어학 학습기 등 물품 3천여만 원어치를 기증했다.

YTN의 이번 기증은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한 연중캠페인의 하나로 이뤄진 것이며 앞으로도 기증이나 사회 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 길 안내 내비게이션, 이제 막힌 길도 알려 준다



YTNDMB는 7월2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더맵, 만도맵엔소프트, 시터스, 이너큐브, 이스트소프트, 자티전자, 지어소프트, 톱크웨어, 픽처맵인터내셔널 등 교통정보산업 관련 주요업체들과 함께, 지상파DMB 교통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TPA(공공 교통정보 얼라이언스, TTI for Public Alliance)를 결성했다.

이 얼라이언스의 탄생은 지상파DMB의 첨단서비스인 교통정보(TTI)서비스를 다양한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정보 서비스의 조기 보편화를 도모하고 관련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YTNDMB는 지상파DMB의 데이터방송 채널 NBEEN(엔빈)을 통해, 다양한 교통정보를 송출하는 전송규격인 TPEG (Transport Protocol Experts Group) 방식으로 실시간 도로 소

통 속도 정보는 물론, 돌발상황, 지역별 편의시설 정보, 위험지역 정보 등 다양한 교통여행정보(TTI, Traffic and Traveler Information)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해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이같은 실시간 정보는 국민의 생명까지 보호하는 방송의 공익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비게이션 솔루션 업체들은 이렇게 제공된 YTNDMB의 교통정보를 내비게이션 단말기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계획이다. 즉, 기존 길 안내 솔루션에 결합해, 가까운 길 뿐 아니라 막히지 않는 가장 빠른 길까지 안내해 줄 뿐 아니라, 실시간 뉴스나 다양한 지역정보까지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업체들의 국내 내비게이션 솔루션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85%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사용자들이 YTNDMB의 교통정보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YTNDMB는 경쟁사들에 비해 고품질의 교통정보를 저렴하고 손쉽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전략을 세우고 있다. YTNDMB는 오는 9월 한 달 동안 시험방송을 거쳐 10월초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게시판

- 입사  
김준형 타워운영팀 8.3
- 퇴사  
조봉환 이사대우 홍보심의팀 8.6 / 박중훈 부장대우 기술관리팀 8.8 / 정민희 뉴스기획팀 8.19
- 전보  
강성욱 차장대우 국제부, 유재복 차장대우 북경특파원 준비 7.25 / 왕선태 차장대우 해외연수 8.7 / 유재복 국제부, 정종석 차장대우 정치부, 김동민 차장대우 스포츠부, 최재민 차장대우 뉴스6팀, 이병식 사회1부, 이강문 뉴스기획팀, 김태은 영상취재팀, 김상우 보도국(해외연수) 8.21 / 김호성 차장 보도국(해외연수 종료) 8.23 / 윤성수 차장대우 보도국(해외연수) 8.24
- 부음  
천상규 스포츠부장 배우자상 8.21 / 문중선 부장 홍보심의팀 부친상 8.28 / 송기섭 제작기술부 모친상 9.3



중금속 아파트 부지 - 취재기

# YTN '경남 특파원' 박종혁입니다



### 중금속 오염 취재는 지난 1월

사실 이번 아이템은 지난 1월 경희대 지구환경연구소의 토양환경평가 결과(이하 경희대 자료)를 제보 받고 시작됐다. 수습 뎀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습기자나 다름없는 피라미 기자가 어디 '조질 거 없냐, 걸리면 죽는다' 하며 눈에 불을 켜고 다니던 때에 만난, '웬 월척인가' 싶은 제보였다.

경희대 자료를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토양 오염을 평가하는 기준치가 주택 용지가 아닌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물론 법적으로는 조사 당시 땅의 용도가 공장 용지이기 때문에 기준치도 그에 따라야 한다지만, 앞으로 사람이 살 곳이라면 주택 용지에 적용하는 기준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었다. 그래서 주택용지에 맞는 기준치를 적용해 천 2백여 개가 넘는 데이터를 손으로 직접 분석했다. 결과는 당연

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건 확인 뿐. 주식회사 부영과 경희대는 물론이고 마산시의 환경과 등 담당 부서, 그리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과 경남대 심지어 환경부까지 무작정 전화를 돌리거나 이철근 선배와 직접 찾아 다녔다. 그렇게 해서 원고를 쓰고 1차 데스크까지 받았지만 당시 기사는 출고되지 못했다. 이유는 사업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 건드렸다간 역공을 받기 쉽다는 것이었고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역 신문에서 간혹 부영 아파트 부지에 기사라도 나면 혹시 적군이 먼저 알고 쓴 건 아닌가 하며 노심초사 기다렸고, 경상남도의 사업 승인이 가까워 질 때부터는 수시로 토양 오염 문제가 해결 됐는지를 체크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취재 기간도 1월에는 촬영까지 사흘, 이번에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새 그림 찍느라 또 이틀. 결국 지난달 초 사업 승인이 나자마자 '준비된 사수부터 발사'가 시작되었다. 결국 YTN의 승리.

### 인자 갱남에서 YTN 무시하모 큰 코 다친데

첫 날 보도가 나간 뒤 경남경찰청 기자실에 나가니 분위기는 썰렁. 자료를 달라는 곳은 우리 협력 SO인 경남방송과 경남도민일보 기자뿐. 저녁 쯤 돼서야 KBS와 MBC 기자들이 편성팀에서 연락이 왔다. 자료 달라고.

다음 날. 속보를 내고 취재 브리핑을 마쳤더니 MBC 캡이 하는 말이 '야 종혁아, 단독 나갔으면 속보는 같이 가야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좀 알려주지' 하는 것이다. 사실 어제 다른 기자들에게 대충 말해줬는데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된통 당한 것이었다.

어쨌든 둘째 날부터 연합과 경남도민일보가 따라오

면서 지역에선 이슈가 됐다. 2주일이 다 돼 가지만 경남도민일보에는 매일 1면에 도배를 하고 지역 방송도 여러 번 탔다. 택시를 타도 라디오에서 연일 떠들어 대고 식당엘 가도 '그 아파트에 누가 입주 하겠냐'며 반찬으로 상에 오르내리니. 여하튼 오디오 맨도 없이 팔랑 세 명이 한 방 먹였으니 이젠 YTN 무시 못 할 판이다.

사실 이번 보도는 추은호 부장 등 사회 2부 선배들과 '뉴스 오늘' 팀 선배들의 도움이 컸기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

### 진짜 세 명 밖에 없어?

사실 창원팀은 부산지국에 속해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세 명이 아니지만 320만 경남도민은 거의 우리 세 명이 커버한다. 물론 그래서 물 먹는 것도 많다. 여하튼 세 명이 일하니까 물리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취재 기자인 나는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 초년병이다. 때문에 여러 면에서 무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 온지도 어느덧 10개월이 흘렀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타사들도, 특히 방송은 우리 매체를 인정하는 편이다.

언젠가 타 방송사 캡이 '나는 경남특파원 아니냐'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은 맘이 상하기도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오히려 그 말을 좋아하고 즐기게 됐다. '니네는 만들어봐야 지역이지만 우리 만들면 무조건 전국방송이야. 이거 왜 이래!' 하는 오기가 도움도 됐다. 또 언젠가 좋아하는 선배가 '기자는 노력과 실력으로 그리고 기사로 말하면 된다'는 말을 조금씩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랄까. 건방진 소린지 모르지만.

박종혁 부산지국

## 단 신

### YTN 뉴스, 야후로 생방송



YTN 뉴스가 8월 16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를 통해 하루 24시간 실시간으로 생방송 된다.

뉴스를 보려면 야후코리아 홈페이지의 'YTN 창'을 클릭하면 되며, 회원 가입이나 추가 비용없이 YTN 뉴스를 언제 어디서나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포털사이트가 VOD, 즉 주문형 비디오 방식이 아닌 뉴스 생방송을 서비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방송 서비스와 함께 스튜디오와 부조정실 등 뉴스 제작 현장의 모습도 아울러 공개된다.

이밖에 뉴스를 보며 댓글을 달고, 토론을 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은 YTN 뉴스 제작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 이광연 앵커, '우리 말글 지킴이'로 선정



이광연 앵커가 한글학회서 선정하는 올해의 '우리 말글 지킴이'에 선정됐다.

이광연 앵커는 2003년부터 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을 맡아 한글날 행사 등을 진행하고, 최근에는 국회 한글문화회 위한 세계화 모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우리말을 올바르게 쓰는 일에 앞장서 왔다.

위촉식은 7월 13일 서울 우이동 메리츠화재 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 포토뉴스



영화 PPL '가문의 부활' (7.21)



미술사 이은결 '클로즈업' 출연(8.30방송)



## 수해취재기

## 수마(水魔)가 휩쓸고 간 인제, 그 현장을 가다...



## S#1. 갑작스런 출장

미군부대 이전관련 취재도중 당직데스크에게 걸려 온 한통의 전화. “급히 출장갈 일이 생겼으니 회사로 복귀하라...”. 허겁지겁 도착한 장비실엔 장화 우의를 필두로 6mm카메라, 전화국용 송출장비 폴세트에 민약을 대비한 노트북과 인터넷 송출장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해로 엄청난 피해가 난 강원도로 달려가는 데스크의 말에 부담감이 확 밀려온다.

## S#2. 인제가면 언제 오나???

빗속을 뚫고 인제초입까지는 잘 왔는데 산사태로 인해 46번 국도는 주차장이 되어버렸다. 일단 차에서 내려 산사태로 인한 도로유실을 담아볼 요량으로 앞으로 달리고 또 달렸지만 오랜 정체 탓에 한 시간은 족히 걸어 현장을 볼 수 있었고, 영상을 한컷 한컷 담으면서 앞으로 이동하다보니 피해가 컸던 인제의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나니 화면을 송출할 방법이 인터넷 밖에 없다는 생각에 원통읍내의 PC방으로 발길을 돌려 제작을 완성하니 새벽 3시. 앞길이 깜깜하기만 하다.

## S#3. 눈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다!!

마을사람들과의 친분으로 이른 아침 가방에 카메라를 숨긴 채 고립마을 한계3리로 향했다. 피해가 크고 위험한 지역으로 취재진의 출입이 불가했기에 이지는 기자와 사운드맨 김석기, 그리고 나는 마을주민인양 추리

닝에 험령한 라운드티로 변신을 해야 했다.

한걸음 한걸음 내딛어 한계3리가 보이는 마을 초입에 힘겹게 도착했지만 다리는 끊어졌고 마을로 갈 길은 급류가 흐르는 계곡을 건너는 방법 뿐. 강렬한 물줄기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기를 30분, 무모한 행동이 실종자 수만 늘릴 수 있단 생각도 들었지만, 결론은 계곡을 넘자는 것이었고 이재민 탈출용 레펠에 안전장치 하나 없었지만 마을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국지성호우에 한계3리 민박촌은 마치 폭탄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고, 가옥은 흔적을 찾을 길이 없을 정도였다. 마을사람들은 구호품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었고, 떠나려 온 간벌목과 토사가 마을을 뒤덮었다. 깃털만 남긴 채 버려진 까마귀는 굶주림을 참지 못한 고양이의 먹이가 되어 길가에 내팽겨쳐 있었다. 타방송사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을 취재했다는 만족감도 잠시 다시 급류를 건널 생각을 하니 두려움도 많았지만 빠르게 방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고, 운 좋게도 소방대원들을 만나 무사히 마을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 S#4. 읍내 PC방은 YTN이 접수한다.

이번 수해취재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송출로 생각된다. 지상파 방송의 SNG로 뽑어내는 화력에 뒤지고 싶지 않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화국송출용 장비에 이동용 데스크까지 가져갔지만 인제의 상황은 그 어느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은 인터넷송출로 방송제작물을 서울로 보내야만 했다. 그간 부서에서의 교육과 지난 독일월드컵 출장시 사용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전화연결에 필요한 영상의 업데이트, 저녁 뉴스를 위한 리포트 제작 등으로 하루에도 PC방을 두 세 번씩 가야했으니 치명적

인 과오가 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비워야 했다. 3분 정도의 전화연결용 그림을 컴퓨터 작업을 통해 송출하는 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는 잦은 에러로 애를 태웠고, 장비하나 놓을 자리조차 없었다. 담배연기 자욱한 PC방의 열악한 제작환경은 취재보다 더 힘든 일과였다.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시작으로 인터넷송출 및 제작은 디지털로 변하는 과도기에 영상취재팀에서 짜낸 아이디어로 다수의 취재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컴퓨터를 비롯한 장비의 보완은 시급한 형편이고 촬영기자가 촬영과 제작을 기본으로 하여 송출까지 담당하다보니 업무는 이중되곤 했는데 다음 출장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 S#5. 다음 출장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 월드컵 16강 좌절을 두고 후자는 이런 말을 했었다. 정신력과 투혼을 내세운 한국축구의 한계를 보여준 월드컵 경기였다고...

이젠 선진시스템과 앞서 가는 전략으로 승부해야 진정한 축구발전이 가능할거라고.

언제나 두려움이 앞서는 재난현장의 취재는 YTN 특유의 맨파워로 포기하지 않고 남들보다 한걸음 더 뛰며 냉철함을 잊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월드컵 16강 좌절과 그간의 출장취재들이 디졸브 되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왜일까.

이승준 영상취재팀



## 호우 특보 방송

## 꿈에서도 호우 방송 ...

올해 여름...

유난히 장마도 길었고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덧 입사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이제야 비로소 기상팀 신고식을 단단히 치렀다는 생각에 가슴 한 구석에는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전 작년 이맘 때쯤 입사해서 여름이 기상팀에게 얼마나 힘든 계절인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선배들 말씀으로만 장마 기간이 가장 바쁘고 힘들다는 것만 익히 들어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차 장마가 다가오자 전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장마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잠을 설친 날도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제 마음을 아는 지 장마 첫 무렵에는 '정말 장마기간이 만나' 싶을 정도로 강우량도 적었고 맑은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슨해져서 었을까요?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며칠을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 지역에 수해가 잇따랐고 서울 곳곳에서도 물이 불어났습니다. 그동안 시청자의 입장

에서만 보아오던 뉴스 속보가 바로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특보 상황과 시간당 50~60밀리미터씩 내리는 장대비에 강우량은 단 서너 시간 만에 200~300밀리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던 물풍선만한 빗방울이 차 유리창으로 푹푹 떨어졌습니다.

자다가도 빗소리가 들리면 야근 걱정이 앞섰고, 꿈에서도 호우 방송을 했습니다. 또 하필이면 주말마다 내리는 비 때문에 기상팀 모두 3개월가량 주말도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선배들도 이번 여름이 유난히 비도 많았고 주말마다 비가 내리는 바람에 다른 해보다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제가 이렇게 끔찍한 장마를 잘 보낼 수 있었던 건 선배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야근을 하기 벅차다며 함께 근무 하면서 그래픽까지 만들어 준 김진두 선배, 기상 지식에 대해 매일 매일 개인 교습을 해 준 한민정 선배, 빠르고 재치 있게 척척 도움을 준 김지현 선배, 늘 따뜻하게 천사 같은 미

소로 격려해 주는 정혜운 선배, 밤잠·낮잠 모두 설치 가면서 그래픽을 만들어 준 강병운 선배, 그리고 말없이 도와준 후배들까지... 제게 너무도 큰 힘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TV에 나오는 수재민들을 보면서 그저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시청자였지만 이제는 호우 상황과 전망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저 하나라면 이 막중한 책임을 다 감당해내기 힘들겠지만 제게는 든든한 기상팀이 있습니다. 보다 생생하고 알찬 정보를 위해 YTN기상센터는 늘 깨어있고 열려있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이 단단해 지듯 기상팀은 호된 장마를 겪을 때마다 한 걸음씩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양혜경 문화과학부





YTN 가족 - 야후코리아 '네티즌 광장' 팀

# 촌철살인 목소리, 생생하게 전달

YAHOO!  
KOREA

왼쪽부터 엄지인 김환 유주안

지난 5월 17일, 제가 처음으로 카메라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났던 날입니다. 아직 경험도 없고 부족한 제가 생방송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겁 없이 카메라 앞에 섰던 순간입니다. 그 때의 떨림은 아직도 생생한데요, 손발이 다 떨리고 소름까지 돋았던 그 순간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방송 3개월 차, 지금의 시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앵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네티즌 광장은 야후 코리아에서

제작해서 매일 뉴스의 현장 2부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들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뉴스에서는 쉽게 다루지 못할 목소리들을 '네티즌 광장'을 통해 기발하면서도 때로는 촌철살인의 누리꾼들의 목소리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활력 넘치는 시간입니다.

네티즌 광장은 지난 해 11월부터 시작됐고, 처음 이

자리에 계셨던 박형주씨와 진영씨는 각각 연합뉴스와 춘천MBC로의 영전(榮轉)(?)을 하였고 지금은 김환, 엄지인, 유주안 이렇게 세 사람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 유주안

제 별명은 '안주류'입니다. 술자리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주같이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김 환

Y: YTN에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맡고 있는 (초 절정 완전 꽃미남) 김환입니다.

T: TV에 나오는 제 모습에 한숨만 나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만,

N: 엔간히(?) 해서는 YTN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최선을 다해 최고의 앵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안 계셨다면 네티즌 광장은 없다! 부족한 장비에도 저희 앵커들 최고의 모습을 담아내시는 김병양 피디님, 멋진 글 솜씨로 네티즌 광장의 맛을 살리시는 노정원 작가님. 이 분들이야 말로 네티즌 광장의 숨은 주역들이십니다. 한 영화배우의 수상소감처럼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했다는 말을 이럴 때 하는 거겠지요? 아직 저는 맛있게 먹는 것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싶습니다.

비록 YTN 여러분들과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는 아니지만 YTN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그 누구 못지않습니다. TV를 볼 때면 뉴스는 YTN에서 보게 되고, 인터넷을 하더라도 YTN 홈페이지를 한 번씩 찾곤 합니다. 남대문 주변을 지날 때면 YTN사옥을 확인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의 YTN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채널 YTN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제가 함께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지인 앵커 야후코리아

제 11회 전국대학생영상공모전 최우수상

# 껍데기여 오라!



왼쪽부터 기원선, 안창하, 김정주, 장가영, 윤우리

안녕하세요, '제 11회 YTN 영상공모전'에서 '껍데기여 오라'로 최우수 작품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된 팀입니다. 저희 팀원 모두 이화여자대학교의 인터넷 방송국인 'Ewha TV', 그 중에서도 뉴스형식의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유니안'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는 매 3주마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항상 영상을 접하면서, 대외적인 공모전에 참여하여 다른 대학생들과 경쟁하면서 배울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발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공

모전에 주저 없이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제 11회 YTN 영상공모전' 공고가 뜨자마자 저희는 기획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기획에 약 한 달이라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제시된 4개의 주제 중 많은 기획회의를 거쳐 '업그레이드 코리아'를 선택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 코리아'는 어찌면 4개의 주제 중에서 제일 광범위 하여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만큼 독특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업그레이드 코리아'의 요소로 디자인

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디자인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를 영상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껍데기여 오라'로 정했습니다. 이 제목을 정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 신동엽의 시 '껍데기여 가라'에서 껍데기는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저희는 그 속에서 '껍데기=나를 둘러싼 것들, 즉 디자인!'이라는 의미를 끌어들이어 긍정적인 의미로 순화시켜 impact를 줬습니다.

기획안이 완성된 후에는 곧바로 섭외를 시작하였고,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많은 것을 촬영하려고 노력했고요, 저희가 택한 주제가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보니 다양한 촬영분이 필요 했습니다. 촬영 섭외가 종종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7전 8기'라는 도전 정신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공모전 마감 전날 까지도 섭외를 하고, 인터뷰를 하기까지 했으니까요. 또한 촬영과 동시에 편집도 시작했습니다. 공모전 제출 전 3일 동안은 학교 편집실에서 전원이 밤을 새가며 편집에 열중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상을 완성한 후에도 저희가 제작한 '껍데기여 오라' 영상을 몇 번 더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 눈에는 부족한 점만 보였죠. 따라서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수상 발표 날을 기다렸습니다. 최우수 작품상 수상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번씩 YTN에 확인 전화도 했을 정도니까요.

저희는 이번에 '최우수 작품상'이라는 큰 선물도 받았지만 그보다도 공모전을 준비하는 기간에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대학생으로서 무언가에 미친 듯이 도전해 볼 수 있었다는 것, 그 속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도전을 통해 이 상에 보답하겠습니다.

윤우리 이화여대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논문 요약

# DMB YTN 시청동기 '사회관계' 가장 높다

- 이동방송 특징보다 고정형TV의 뉴스 시청동기가 많아 -

## I.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논문은 DMB의 보도채널인 YTN을 중심으로 이동방송 뉴스채널에 대한 시청동기를 알아보고, 또 시청 후에는 무엇이 대해 만족하는지를 연구했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해 이동방송에서 뉴스채널의 시청시간과 시청기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본 뒤 그 함의를 논의했다. 이를 위해 DMB YTN 이용자들의 시청행태와 시청동기, 시청 후 충족,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연구했다.

## II. 연구방법

DMB 사용자의 YTN 시청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DMB 이용자 116명을 길거리에서 설문지를 나눠준 뒤 작성 후 수거하는 방식의 편의적 표집방법(convenient sampling)으로 2006년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서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DMB의 YTN을 시청하지 않는 15명의 답변을 제외한 101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했다.

## III. 연구결과

### 1. 시청행태

DMB 1일 평균 사용시간은 이동 중 44분, 공공장소 25분 등 총 69분으로 집계되고, DMB YTN 시청시간은 1일 평균 약 18분 가량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DMB 사용기간은 약 4개월로 집계됐다. DMB YTN 시청시간은 오후 6~9시와 아침 7~9시가 각각 30.3%, 2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저녁 9~12시(19.7%), 기타(15.6%) 등으로 조사됐다. DMB YTN 시청이후 다른 보도매체의 이용시간이 대체로 큰 변화는 없으나 일부는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지상파 TV·위성방송 YTN과 인터넷 뉴스검색도 각각 19.8%, 16.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2. 시청동기

시청동기는 '관계성'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유용성'(11.3%)과 '탐구성'(7.2%), '휴식성'(6.3%), '편리성'(4.9%), '개인성'(4.5%), '정보성'(4.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동방송의 특징에 따라 시청편의와 관련이 있는 항목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선행연구들의 고정방송 뉴스에서 높은 동기를 보이는 사회관계 등의 내용이 더 많이 나왔다.

### 3. 시청 후 충족

시청충족의 경우 '편리성'이 34.1%로 가장 높았으며, '관계성'(9.7%), '탐구성'(8.7%), '휴식성+개인성'(6.4%), '습관성'(5.4%), '정보성1'(4.0%), '정보성2'(3.7%) 등의 순서로 분석됐다.

시청충족에서는 '휴식성+개인성'의 특징과 함께 '정보성'이 두 가지로 세분화되었다. 시청동기에서는 '관계성'이 가장 많았으나, 충족에서는 '편리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시청동기와 충족은 관계성, 정보성 등의 경우는 동기와 충족 모두 높은 반면에, 이동방송의 특징인 편리성, 개인성의 측면은 '동기'와 '충족'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충족'이 '동기'보다 낮았다. 다만 휴식의 경우는 '동기'보다 '충족'이 높게 나왔다.

### 4. DMB YTN 시청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표1〉과 같이 DMB YTN 시청시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시청동기 중 편리성(Beta -.494\*)이고, 그 다음이 매체 이용시간 중 케이블TV·위성방송의 YTN 시청시간(Beta .490\*)이다. 1~2단계에 투입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소유매체수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편리성에 대한 시청동기가 낮지만 케이블TV·위성방송의 YTN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DMB를 통해 YTN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모든 예측변인은 56.4%의 설명력을 가진다.

〈표 1〉 DMB YTN 시청시간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

구분		Beta	R <sup>2</sup>	R <sup>2</sup> Change
1단계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령 학력 소득	-.182 .067 -.047	.066	0.66
2단계 (소유매체수 변인)	소유매체수	.048	.071	.004
3단계 (시청동기 변인)	개인성 관계성 휴식성 정보성 편리성 유용성 탐구성	.235 .017 .172 .132 -.494* -.048 .163	.283	.212
4단계 (매체이용시간 변인)	지상파뉴스 시청시간 케이블TV / 위성방송 인터넷	.249 .490* .062	.564	.281*

\*p<.05, \*\*p<.005.

DMB를 통한 YTN 시청시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설명력이 6.6%인 반면, 소유매체수 변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YTN의 이용은 0.4%만 더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시청동기 변인을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소유매체수 변인을 통제했을 때 YTN 이용

은 추가로 21.2% 더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투입된 매체이용시간 변인은 앞의 세 단계에 투입했던 인구통계학적 변인, 소유매체수, 시청동기를 통제했을 때 YTN 이용은 추가로 28.1% 더 설명하고 있다.

## IV. 연구결과 논의

우선 시청동기에서 관계성과 유용성, 탐구성이 개인성 등 보다 높게 나온 것은, 기존 연구들의 DMB 사용자는 개인성, 이동성 등과 관련한 시청동기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과는 상당 부분 다른 결과이다. 이는 뉴스 채널에서는 이동매체의 고유한 특성 보다는 사용자의 의식과 능동성에 따른 시청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시계열적인 조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DMB YTN 시청시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인 편리성이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 DMB YTN을 지상파방송 뉴스와 케이블TV·위성방송 YTN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편리성은-지상파방송 뉴스나 케이블TV(혹은 위성방송) YTN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여기는 지, 출·퇴근 시간에 잠시 시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 등의 진술문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따라서 DMB YTN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 시청동기가 낮다는 것은, 이들이 DMB의 YTN을 지상파방송 뉴스나 케이블TV(혹은 위성방송) YTN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출·퇴근 시간에 잠시 이용하기 위해서 DMB YTN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술한 시청동기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은 사회적인 관계와 유용한 정보 때문에 DMB YTN을 많이 시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DMB를 통해서 YTN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DMB의 매체 특성인 편리성 때문이 아니라, 뉴스채널의 전통적인 시청동기인 사회적 관계와 정보 때문에 시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동방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DMB 뉴스채널 시청행태는 상당 부분 기존의 매체 이용행태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상기 매체관리팀



## 전국대학생 영상공모전 시상식

YTN과 경기도가 주최한 제 11회 전국대학생 영상공모전 시상식이 수상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7일 YTN 본사에서 열렸다.

최우수상은 이화여자대학교 윤우리 씨 등 5명이 공동제작한 '껌테기여 오라!'가 차지했다. 이번 대학생 영상공모전은 '취업'과 '업그레이드 코리아', '지방시대', '영어마을' 등 4가지 주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제작됐다.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작 8편은 '시청자의 눈' 프로그램을 통해 8월 27일부터 매주 방영하고 있다



## 제11회 전국대학생영상공모전 수상작

시상	작품명	수상자
최우수상	껌테기여 오라	윤우리, 안창하, 김정주, 기원선, 장기영 (이화여대)
우수상	꿈을 좇는 사람들	안성진, 박현선, 홍수진, 윤여울(경희대)
	돌, 그 위에 새긴 KOREA	박준영, 안현정, 황병인(경주대), 김지욱(경성대)
장려상	청년실업, 돌피구를 찾아라!	김정운, 권명국(한동대학교)
	신 영어시대	이형준(한양대), 김현준(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영어마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도윤, 강석연, 신혜림(세종대)
	유리잔에 날개를 달다	최윤정, 박혜정, 송호달, 양유나, 남은진 (동익대)
	꿈의 공장	정민건(단국대)

야후에서 만나는 YTN

# 방문자 100만 명을 기대하며



YTN 출신이자 지금은 야후 코리아 미디어본부장인 천형석 선배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YTN 긴급뉴스가 생방송되고 네티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댓글을 달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었지요. “YTN 앵커와 기자들은 스타가 될 것이다”

야후 코리아를 통해 YTN 생방송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천 본부장의 말이 현실화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동안 충분한 가능성은 봤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순 방문자(중복방문 제외)가 27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1일 종료 4가 화재 때는 동시 접속자 수가 1만 명을 넘겼습니다.(코리안 빅리거들의 MLB 생중계 때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앵커들에 대한 뜨거운 -가끔은 너무 뜨겁기도 하지만- 애정과 관심도 댓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서비스 첫 날 밤엔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동포들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씨애틀입니다. 항상 고국의 뉴스 일부만 미국 채널에서만 보았는데 넘 좋네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화면, 음질 모두 깨끗하게 잘 나오고 앵커와 기자분들 모두 인물 활하네요. 대한민국의 대표뉴스 채널 YTN 최고!” “프랑스 파리입니다. 지금 여기 시간 22시37분인데 인터넷 속도는 339KB/초로 재생되고 있네요. 앞으로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프랑스에 사는 한국 친구들에게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돈은 되는 거냐?” YTN과 야후코리아가 합의한 광고수익 분

배 모델은 미국 CNN과 야후닷컴의 모델(여기는 생방송이 아닌 VOD 서비스입니다)을 채용한 것입니다. 물론 잘 돼서 ‘돈도 돼야’ 합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좀 더 분위기를 타면 꽤 좋은 수익모델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각 부문에서 YTN 사우들이 맘을 열고 많이 도와줘야 가능하겠지요.

보완해야 할 점들이 아직 많습니다. 계속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댓글 수준도 가끔은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뉴스 보면서 수다 떠는 마당’쯤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콘텐츠입니다. 불만한 뉴스, 그리고 많은 생중계 이벤트들이 사람들을 구름같이 불러 모을 것이고 덩달아 ‘돈’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TV 시청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입니다. 순 방문자 100만 명을 빨리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준석 뉴미디어팀



박형일의 디지털 칼럼 <3>

## 디지털 영상포맷과 전송회선

### 인터넷(디지털회선)을 통한 영상전송은 어떻게 할까요?

디지털 영상압축방식의 발전과 인터넷의 전송대역이 광대역화 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영상전송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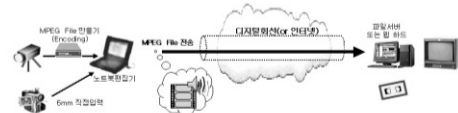
디지털 영상의 대표적인 전송 방법은 Stream 형태와 File형태로 나뉜다. Stream 형태는 디지털영상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이고, File 형태는 디지털영상을 File로 만들어 File을 전송하는 비실시간 형태다.

(그림) 인터넷 영상전송의 형태

인터넷 실시간 영상전송



인터넷 영상 파일전송(비실시간형태)



### 영상압축방식의 종류

영상을 인터넷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상을 디지털화(엔코딩)하여 전송 가능한 방식으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상을 압축하는 방식에는 정지영상을 압축하는 JPEG(Joint Picture Expert Group), 동영상압축방식인 MPEG (Moving Picture Expert Group), 그리고 인공영상(애니메이션)등에 효과적인 Flash 영상 등이 있다.

MPEG은 Moving Picture Expert Group에

서 국제 표준화한 동영상압축 기술로써, VCD급 화질의 MPEG-1에서 시작하여, DVD, SDTV, HDTV 화질의 MPEG-2, 인터넷 방송용으로 시작된 MPEG-4 등이 있다.

### 압축방식에 따른 용도

영상압축기법은 용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MPEG-1은 1.5Mbps이하의 전송속도에서 복잡한 엔코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며, MPEG-2는 2~수십 Mbps의 전송속도가 가능한 고화질 방송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MPEG-4 계열의 영상압축은 인터넷방송화질에서부터 고화질/고효율 압축전송이 필요한 곳까지 다양한 사용가능하도록 계속 발전중이다. - 현재 Cable, 지상파, 위성방송은 안정적인 MPEG-2 Stream 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 차세대 영상압축기법 H.264

DMB 및 IPTV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H.264는 차세대 고효율압축방식으로써, MPEG-4 Part10(AVC)에 속한다. MPEG-2에 비해 1/3용량으로 압축이 가능하므로, 인터넷 등 전송회선이 1/3대역폭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고효율 영상압축을 위하여 매우 복잡한 엔코딩과정을 거치므로, 제대로 만들어진 엔코딩 장비는 고가이며, 압축하는 시간도 약 수배의 시간이 소요된다.

### 실시간 Stream 전송의 화질은 인터넷속도에 좌우된다

영상압축기법이 아무리 우수해도 대용량이기 때문에 아직은 실시간 전송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인

터넷 전송대역폭과 실시간 영상압축속도를 적절히 일치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200~300Kbps는 인터넷 방송급(영상전화급) 화질이며, 1Mbps정도는 VHS급 수준이다. SDTV 화질을 위해서 MPEG-2는 5~6Mbps(영상지연 0.6초), H.264는 2Mbps(영상지연 약 4~5초)가 필요하다.

### PC방에서 영상을 전송한다면...

인터넷으로 MPEG 영상을 전송한다면, ADSL은 7~8Mbps, VDSL은 10~50Mbps, 광랜은 100Mbps정도의 속도가 나온다.

이것은 Network의 기술규격일 뿐이다. 실제 송수신간의 xDSL의 end to end를 경험해보면 보내는 업로드(보내는)속도와 다운로드(받는)속도가 다른 비대칭서비스이기 때문에, 업로드는 약 700Kbps 정도에서 전송되는 경우가 많다. PC방과 광랜은 20~30Mbps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대칭형 서비스). PC방에서 영상파일을 전송할 때, 3분영상이 1~2분 안에 전송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할 수 있다.

(기술상식 1) 1Mbps(메가비피에스, Mega bit per Second)는 초당 10만번의 0과1의 bit를 표현하는 것이고, 1Kbps(킬로비피에스)는 초당 1천번의 0과1의 bit를 표현하는 것이다. ADSL, VDSL에서 표현하는 전송속도와 압축률은 같은 의미이며, File의 저장단위인 MB(메가바이트)와는 표현단위가 약간 다르다.

(기술상식 2) 영상압축의 기본원리 : 비압축 디지털영상은 TV 화면의 모든 화소를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용량이 무척 크다. 그러나 영상압축기법은 눈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거하는 것이 기본원리이다.

(예) 한강철교를 자동차로 지나갈 때 빠르게 달리면, 다리의 난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데, 이를 영상 압축시에 버려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천천히 지나갈 때는 난간을 보이도록 엔코딩 한다. 혹시, 영상을 재생할 때 모자이크가 생기는 것은 엔코딩하는 장비의 성능이 화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전송과정에서 대역폭이 부족해서 생기는 오류 때문이다.

박형일 디지털기획팀



연수보고서 -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

# 미국에서 체험한 '한강의 기적'



## 저널리즘 스쿨은 미주리의 자부심

미주리 주립대학은 기자들에게는 친숙한 곳입니다. 저널리즘 스쿨이 유명하고 또 저널리즘 스쿨의 명성에 힘입어 IRE라고 하는 탐사보도협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주리 주립대학의 저널리즘 스쿨은 미국 내 톱 10에 드는 명문학과입니다. 미국의 언론계에도 미주리 파피아라고 불릴 정도로 그 인맥이 넓고 단단합니다. 그곳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대학 전체 등급으로 미주리 주립대학은 100위권의 별다른 특징이 없는 대학이지만 저널리즘 스쿨만은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는 학과지요. 그래서 국내 상당수 언론학자는 물론이고 많은 기자들도 이곳 미주리 주립대학 저널리즘 스쿨에서 연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수지로 이곳을 택하게 된 가장 진실된 이유는 물가가 싸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미주리 주가 미국에서 물가가 3번째 싼 곳으로 나옵니다. 미주리 주는 미국의 전형적인 시골지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목축업을 비롯한 1차산업이 주요 산업이고 도시를 벗어나면 목초지가 한 없이 펼쳐진 그런 곳입니다.

## 일식집 미조리가 아닌 미주리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미주리 주립대학은 미주리 주 콜럼비아 시트에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룰라, 캔자스 등 주 내 다른 지역에도 주립대학 캠퍼스가 있지만 콜럼비아 캠퍼스가 가장 크고 본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의 가장 큰 도시로는 세인트루이스와 캔자스시가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는 보잉사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도시입니다. 콜럼비아는 두 도시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립대학을 세울 당시 두 도시가 서로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서 결국은 지도상의 한 가운데 지점을 선택해서 아예 대학도시를 새로 만들고 그래서 생긴 도시가 바로 콜럼비아입니다. 미국에는 같은 도시 이름이 무척 많은데 콜럼비아도 미국에만 13개가 있다고 하니 간혹 도시이름만 보고서는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주리는 미국 내 지역구분으로는 중서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처음에 미주리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일식집 미조리나 미도리를 떠올리더군요. 일식집 이름과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다만 연관성이 있다면 2차대전 당시 맥아더 장군이 일왕으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은 항포함 미주리 호의 이름이 바로 미주리 주를 본떠 지은 것입니다. 중서부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동부쪽에 훨씬 가까운 곳입니다. 시카고까지는 승용차로 6시 반, 워싱턴까지는 15시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까지는 25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 미국에도 지역차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구역과 달리 영호남 영동 중부 지역 등으로 편의상 지역을 나눠서 부르듯이 미국은 동서남북 방위를 이용해서 지역을 구분합니다. 우선 크게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방위를 이용해 구분하는데 동부는 워싱턴과 뉴욕 보스턴 등 대서양 연안을 일컫고 서부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태평양 연안도시를 일컫기 때문에 남부와 북부를 제외하 나머지 지역은 자연히 중부라 불립니다. 그 중부에서도 지리상으로는 동쪽과 훨씬 가까운데 동부는 대서양 연안만을 일컫기 때문에 중서부라고 부르더군요. 동부 지역은 아메리카 신대륙의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됐던 곳이고 큰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자신들 지역 외에는 동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고약한 자존심이고 지역 차별로까지 느껴졌습니다.

## 미국의 실체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미국을 연수지로 택한 이유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영어공부를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이제는 우리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언어처럼 돼버린 영어를 가르치는 비용이 한국에서는 사실 아주 값비싸지 않습니까?. 최근 강남의 한 학원에서는 SAT 1년 수강료가 3천만 원을 넘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 저는 1년 연수하면서 아이들에게 적어도 수천만 원 이상의 영어과외를 시킨 셈입니다. 기자 아빠 잘못 만나서 바쁘다는 핑계로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수천 만 원짜리 학원에도 못 보내고 과외도 못 시켜 주는데 처음으로 부모 노릇 제대로 했다는 위안이 생깁니다.

부모 입장을 떠나 기자로서는 사실 미국의 실체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저력이 세계 최강대국을 이루게 됐는지 도대체 어떤 힘이 현대사회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필적할 수 없는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게 됐는지 피상적이거나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1년의 연수기간에 확인하기에는 너무 거창한 주제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아니고서는 한두 마디로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짧은 1년의 연수기간에 미국의 실체를 파악하게 됐다면 저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미국학 전문가가 되었겠죠?

## 가도가도 끝이 없는 도로

미국에 도착해서 처음 드는 생각이 '참 넓다' 아니 '정말 크다' 였습니다. 가도가도 끝이 없는 쪽 뺨은 도로, 도로 양 옆에 한 없이 펼쳐진 평야. 우리나라에서 지

평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전라북도 김제 평야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길가다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지평선입니다. 그 땅도 너무 비옥해서 씨만 뿌리면 농작물이 쭉쭉 자란다니 부러운 마음이 절로 들더군요. 땅 넓이로 본다면 미국은 세계 4위라고 하더군요.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캐나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하지만 지도를 펴놓고 보면 러시아와 캐나다는 쓸모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중국이 비교될 수 있겠지만 중국 역시 활용도로 치면 미국과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넓은 땅에 부존자원은 얼마나 풍부합니까? 석유까지 평평 쏟아지니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 받은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나라 미국하고는 앞으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힘센 나라 미국은 성질이 고약(?)해서 약간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바로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초토화를 만드니 비위 상하지 않게 살살 달래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평소 친미하던 사람은 미국가면 반미가 되고 반미하던 사람은 친미로 돌아선다는 데 저는 평소 반미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 높아진 한국의 위상 실감

미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가진 게 정말 없는 나라입니다. 변변한 부존자원 하나 없고 좁은 땅덩어리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는 가련한(?)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짧은 주전자처럼 역동성이 넘쳐 늘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는 계층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서 행복하다는 사람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 그래서 기회만 되면 언제라도 한국을 떠나겠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는 나라. 우리는 정말 불행(?)한 나라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살기 힘든 나라를 외부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 보다 높이 평가해 주고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50불짜리 나라가 불과 반세기만에 만6천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사실이 놀라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흔한 얘기가 돼버렸지만 미국의 주요 유통업체에 가면 우리 업체의 제품이 가장 좋은 자리에 진열돼 있고 가장 고가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그 계열사인 샘즈 클럽 뿐만 아니라 주요 백화점에 가보면 삼성과 LG의 제품이 가장 좋은 자리에 진열돼 있습니다. 가격표를 보면 그 옆의 일본 소니사 제품보다 백불, 2백불 더 비싸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라에서 이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실제 체험했다고나 할까요? 미국에서 바라보는 코리아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있습니다. 땅덩어리는 작지만 잠재력은 대단한 나라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 것을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 평가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 한국사회의 성과를 누구의 공으로 돌릴 것인가라는 문제와는 별도로(이 문제를 논한다면 아마 격렬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연수 1년 만에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부정적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성욱 차장대우 국제부